

1962年度の 圖書館教育

— 퍼어스넬리티이의 重要性을 더욱 痛感 —

張 一 世

序 言

우리나라 將來의 圖書館界를 걸머지고 나아가야 할 役軍을 길러는 教育이야말로 우리 圖書館界에서 가장 重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다가올 여러가지 豫想되는 難關과 더불어 現在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우리의 處地로 보아, 이에 關心을 가진 사람은 勿論, 教育을 받은 여러 專門職 司書의 責任과 任務는 다른 어떤 部門보다도 무거운 責務를 느끼지 않을수 없는것이 率直한 우리들의 現狀이다. 그뿐만 아니라 專門職 司書들은 外國의 그들 보다도 더욱 奮發해야 한다.

그 理由는 우리나라 專門職 司書들이 해야 할 일, 그보다도 急速히 成就해야 할 일들이 山積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緊急을 要하는 일로서는 各級 圖書館 發展의 母體가 될 圖書館法 制定임은 두말 할 必要도 없는것이지만 이밖에 急速한 解決을 보아야 할것으로는 標準 分類表의 作成이라든지, 編目規則의 制定, 圖書館 用語集의 發刊, 各級 圖書館 基準의 作成等等(이중 一部는 現在 制定이 進行되고 있다) 이루 말할수 없이 많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教育을 받은 專門職 司書들이 걸머져야 할 일들이다. 그러나 不幸이도 專門教育을 받은 司書가 不足한 우리의 現狀은 여러가지로 많은 어

려움을 겪지 않을수 없는것이 事實이다.

그렇다고 해서 教育 받은 司書의 數로서만 이 어려운 일들이 解決될수 있을것인가? 아니다. 教育과 더불어 퍼어스넬리티이가 重要한 問題이다.

筆者는 여기서 專門職 司書의 퍼어스넬리티이에 對하여, 쓰는것이 目的이 아니므로 그것을 論하고자 하는것은 아니다. 所謂 專門職 司書와 퍼어스넬리티이 問題는 不可分의 密接한 關係를 가지는것이고, 또 筆者가 經驗한 바에 依하면 專門職으로서 갖추어야할 가장 重要한 것의 하나이기때문이다.

圖書館 業務의 大部分은 華麗한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의 全部가 숨은 일이란 말이다. 따라서 두두려지게 남의 눈에 띄는것이 없다. 그러므로 남의 눈을 안만이고 속일 수도 있고 또 일의 量도 얼마던지 속일 수 있다. 여기에 퍼어스넬리티이 問題가 생기게 된다. 卽 良心의 아니고서는 圖書館 業務는 圓滿히, 또 滿足 스텝게 해 나갈 수 없을 뿐만아니라 圖書館 業務의 發展을 期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圖書館 業務의 모든 部門이 그렇게 남의 눈에 띄이지 않는것임에도 不拘하고 매우 重要한 일이라는 點이다. 排列하여야 할 카아드 한장 쯤 없

에 버려도 아무도 모른다. 10年後에, 또는永遠히 發見안되고 지나 갈 수도 있다. 分類하는것도 그렇다. 올바른 分類를 하지 못하였을 때는 거의 利用못하는 수가 많다. 書架에 冊을 꽂는것도 잘못 꽂으면 檢書하기 까지는 利用안된다. 高貴한 知識의 寶庫가 하품하게 되는것이다. 이런 일을 일일이 例로 들자면 非—非再하다. 即刻의으로 結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에 圖書館人들의 퍼어스널리티에 依存하는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나 良心의이야 한다는 것은 그러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거의 宗教的인 奉仕가 專門職 司書들에게 要請된다는 것은 비단 參考事務뿐만이 아니라 모든 圖書館 業務에 걸쳐서 絶對的으로 要請됨에도 不拘하고 지금까지에는 別로 이 方面教育에 注力하지 아니하는 것은 쉰 일일까? 우리는 앞으로 專門職 司書를 技術面에서 뿐만 아니라 各個人의 보다 完熟된 퍼어스널리티를 가질수 있는 方向으로 教育의 重點을 돌려야 한다고 筆者는 力說하는 바이다. 技術은 短時日內에 習得할 수 있는것이지만 人格의 向上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기때문이다.

지난 1年동안 우리 圖書館 教育界에도 많은 發展이 있었다는것은 否認할수 없는 事實이다. 더욱이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 學科에서 4年의 正規課程을 履修한 卒業生이 大量 輩出됨으로써 圖書館 教育界도 차츰 本軌道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事實은 참으로 括目할만한 이해의 收穫이며, 차츰 教育界도 過渡期的인 段階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아래에 몇가지로 區分하여서 圖書館 教

育關係를 살펴 보고자 한다.

大學教育

뭐니 뭐니해도 圖書館 教育에 있어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것은 大學에 있어서의 正規 4年課程이다.

I. C. A. 援助下에 美國의 Peabody 師範大學의 協助로 이루어진 延世大學校 圖書館 學科에서 今年度에는 女子 9名을 包含하는 計 20名의 第3回 卒業生을 圖書館 界에 輩出하게 되었으며, 한편 獨自의으로 經營하는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 學科에서는 今年에 비로서 第1回 卒業生 57名을 社會에 내놓게 되었다.

이렇게 大量으로 4年의 正規課程을 밟은 圖書館 學科 專攻의 學生들이 우리 社會에 輩出되기는 일찍이 우리 歷史上 보지 못한 일이며, 이는 우리 앞날의 各級圖書館 發展을 爲하여 참으로 慶賀할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卒業生이 多數 輩出되는 反面 이들의 就職이 또한 큰 問題이다. 圖書館 法이 制定됨으로써 法的으로 專門職을 保護토록 된다면 오이러 지금 輩出되는 數로는 到底이 그 需要를 充足 시킬수 없는 것은 曠한 事實이지만, 지금 그러한 法的인 措處가 全然 없고 또 大部分 圖書館 經營者들이 專門職 司書의 必要性和 重要性을 認識치 못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就職問題는 참으로 큰 關心事가 아닐수 없다. 美國에서의 例를 보면 每年 1,500餘名이 專門職 司書教育을 받고 卒業되지만 아직도 每年 500餘名이나 不足된다고 하니 얼마나 그나라에서 圖書館에 對한 認識이 充分히 되어 있는가를 이로써도 알 수 있다.

먼저 延大卒業生의 就職狀況을 잠시 살펴 보도록 한다.

이미 卒業한 延大 圖書館學科 第1, 2回 卒業生 30名은 大體로 全部 就職됨으로써 韓國 圖書館界에 活氣를 더게 해 주었으나, 위에서도 簡單히 指摘한바와 같은 理由와 卒業生數의 急增으로 今年度 卒業生들의 就職은 여러가지로 難關이 많은것 같다. 아직 時期的으로도 就職 與否를 판 가름할 階梯는 아니지만 確定的으로 決定된 卒業生數는 不過 數名에 지나지 않은 것 같으나 여러군데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現狀이니 좀더 두고 보아야 하겠다.

梨大 형편을 보면, 처음으로 57名이라는 多數의 卒業生이 輩出되며, 또 그들의 全部가 女子라는 點이 延大와는 事情이 全然다르다. 처음 내는 卒業生이므로 그들의 就職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對하여 매우 궁금 하였으나 지금까지의 結果는 참으로 鼓舞의인테 同慶하지 않을 수 없다. 延大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직 決定的인 數를 알수는 없는것이지만 지금까지 10餘名이나 職場이 確定되었다는 事實은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女性이 職場에 많이 나갈 수 있다는것과, 특히 圖書館 業務가 女性들에게 매우 適合한 職業이라는것을 事實이 證明하고 있는것이다.

卒業生들의 出身 高校를 參考삼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梨花女高	13
京畿女高	11
釜山女高	5
全南女高	4
進明女高	3
서울師大附高	3
培花女高	2

中央女高	2
眞信女高	2
全州女高	2
其他	10
計	57

한편 今年度 新入生 數를 보면 延世大에는 男子 16名, 女子 14名 計 30名이고, 梨大 역시 30名으로서 合計 60名이 入學되었는데 梨大의 入學生들의 出身校別을 보면 다음과 같다.

京畿女高	6
梨花女高	6
昌德 "	3
淑明 "	3
首都 "	2
其他서출出身	3
慶南出身	4
全南 "	2
全北 "	1
計	30

高級司書養成課程

所謂 一名 土曜課程으로도 불리우는 이 課程은 高級司書(註: 이 語彙가 明確히 뜻하는바를 筆者는 잘 알지 못하므로 이에 對하여 더 자세한 說明을 加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를 養成함을 目的으로 하는것으로서 30學點을 履修하여야 한다. 이미 4期生까지 修了하였고 지난 1月30日 第5期生 25名이 나오으로써 이 高級司書課程은 끝을 맺었다.

圖書館 在職者로서 大體로 大學 出身인 中堅 司書의 急速한 再教育과 同時에 正規課程 出身者와의 橋梁 役割을 擔當할 사람들 養成을 目的한 이 課程이 이제 終了하였다는 事實은 大學 4年 正規課程

을 履修한 圖書館學科 卒業生이 輩出하기 시작하였다는데 起因함은 當然한 趨勢이다.

司書教師養成課程

現職 中高等學校 教師로서 圖書館 또는 圖書室 擔當 責任者를 司書教師로 養成하기 爲한 課程으로서 이미 數年來 延世大에서 實施하고 있으며, 昨年度에는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 主權로 中高校 教師 및 國民學校 教師, 그리고 大學圖書館 在職者中 大學卒業者를 對象으로 역시 司書教師 養成을 目的으로 夏, 冬 放學中 實施되어 30餘名이 履修하였으나 今年度에는 여러가지 事情에 따라 中止하였다.

이 課程은 두 放學期間을 利用하여 開催되는것이 特徵이며 大略 그期間 동안 200~300時間을 教授하며 學點으로 大略 18學點 程度를 履修하게 된다.

現在 延大에서는 第5期生 25名이 지난 夏期放學부터 受講하고 있는데 이번 冬期에 繼續될 것이다.

이들 所謂 司書教師는 역시 圖書館法이 없는 關係로 司書教師로서의 待遇를 全然 받지 못하고 있는것이 事實이며, 司書教師라는 名稱 조차 法的인 根據가 있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一般教師나 다름없이 一週 24~26時間의 授業時間과 課外로 圖書館 業務를 擔當하는 不合理하고도 過重한 實務에 시달리고 있다.

法에 依하여 司書教師職이 保障되고 또 法에 依하여 모든 中高校 乃至 國民學校에 司書教師를 두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養成方法 또는 養成機關으로서는 到底히 그 數爻를 充足 시킬수는 없는 일이나 지금까지 이 課程을 履修한 그들조차 제대

로 待遇를 받지 못하는 現況으로서는 앞으로의 養成도 問題되지 않을 수 없는것이 現實이다. 여기에 또 早速한 圖書館法 制定의 緊要性이 存在해 있는것이다. 하여 간 이와같은 講習에 依한 履修者 總計는 兩校 合하여 大略 130餘名에 達하고 있다.

實務者講習

實務者를 再教育시키는 이 講習은 가장 오랜 歷史를 가지고, 여러回에 걸쳐서 大體로 韓國圖書館協會와 文教部와의 共同 主權로 每年 1回 開催되고 있다.

이 講習은 50 乃至 60時間을 1週日 乃至 10日 동안에 受講하는것으로서 今年度에는 讀書週間 직후에 實施되었다. 受講 資格은 該當 圖書館 責任者의 推薦으로만 되는것이므로 學力 및 經力이 千差萬別인 것이 또한 特徵이다.

今年에는 이 講習을 2班으로 나누어 實施하였는데, 第1班을 普通班이라고 불려 여기에는 지금까지 이런 種類의 講習을 全然 받지 않은 사람들로서만 構成하였고 第2班은 專門班이라 稱하고 지금까지 이런 種類의 講習을 1回以上 受講한 사람들로 構成하였다.

筆者가 이 受講申請者들의 여러가지를 調査해 본 結果를 表로서 表示하면 大體로 다음과 같은 재미 있는 事項을 알 수 있었다.

受講期間 11月5日~11月15日

總授業時間 59時間

受講申請者數

普通班	80名	┌	修了者	75名
		├	不參者	2名
		└	落伍者	3名
專門班	34名	┌	修了者	33名
		└	不參者	1名

職場別 普通班申請者 專門班申請者

中·高教師	18	3
大學圖書館	27	18
公共, 特殊圖書館	35	13
性 別		
男	56	26
女	24	8
年令別		
20歲以下	6	1
20~25	11	2
26~30	25	9
31~35	23	7
36~40	12	15
41歲以上	3	없음

學歷別

國民校卒	1	없음
中學中退	2	"
" 卒	1	1
高校中退	1	없음
" 卒	18	11
大學中退	18	5
" 卒	32	17
大學院中退	1	없음
" 卒	6	"

圖書館實務經歷

3年以下	61	18
3~6年	16	12
6年以上	3	4

以上에서 보는바와 같이 참으로 千差萬別이다. 이러한 對象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實施하는 이 講習이 果然 얼마나 所得이 있을것이며, 또 教授하는 基準을 어디다 두어야 할것인가는 眞摯하게 再考되

지 않으면 안될 問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별다른 教育機關을 갖지 못하였던 우리들 事情으로는 그나마 이런 式의 講習이라도 없었던들 더욱 圖書館界는 沈滯狀態를 甦할 길이 없었을것이며, 나날이 發展하는 圖書館學問을 따라갈 길이 없었을 것이다.

結 言

以上으로 지난 1年동안의 圖書館 教育을 大略 살펴 보았다. 1962년에는 꼭 圖書館法이 制定될것이라는 큰 希望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의 制定만을 鶴首苦待하였지만 虛事였다.

法の 保障 없는 이 教育이란 얼마나 맥 빠진것인가는 再三 이야기 할 必要도 없다. 그렇다고 이 方面 教育을 疎忽히 할 수는 없다. 새해에는 반드시 圖書館法이 制定될것이라는 信念과 또 그렇게 되기 爲하여 우리들은 總力を 기우려 모든 方法으로 努力하고 鬪爭함으로써 좋은 結果를 얻도록 서로 힘써야 할것이다. 그와 同時에 우리는 技術面뿐만 아니라 퍼어스널리티이를 향상시킴으로써 對外的으로는 圖書館을 充分히 認識시키고, 對內的으로는 보다 훌륭하고 充實한 圖書館을 만들기 爲하여 各自의 努力이 있어야 하겠다.

各級 圖書館에서 默默히 맡은바 일에만 專念하시는 여러 同志들의 繼續的인 健闘와 아울러 希望에 가득찬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祝願하는 바이다.

(梨大圖書館學科 助教授)